

여성 인권 보호 및 포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성 인권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노력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젠더(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창립 이래 여성 인권 신장 및 인식 변화, 생활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부, 캠페인 등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과 리더십 역량·젠더 관점 강화 또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여성 NGO 리더십육성기금의 경우, 한국여성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에게 기업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기업-시민단체-대학의 3자 협업 모델로서 그 가치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 기준, 총 1,058명의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같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표 4-22] 여성NGO리더십육성기금 지원 현황(2007~2022년)*

* 2022년 7월 기준

NGO 여성 리더 육성 기금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장기과정 미래여성NGO 리더십 과정 (석사과정)	인원(명)	10	9	11	10	9	11	10	8	12	10	6	10	10	13	11	8	158
	주파트너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학교																
단기과정 NGO리더십 심화 과정 (3개월)	인원(명)	-	51	61	60	60	60	61	60	60	60	30	60	62	70	70	75	900
	주파트너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재단, 계명대	여성 재단, 상지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 재단, 전북대	여성 재단, 전남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TOTAL	인원(명)	10	60	72	70	69	71	71	68	72	70	36	70	72	83	81	83	1,058